초대석

아시아 태평양 호스피스 학회

(Asia pacific Hospice Palliative Care Network, APHN)

홍 영 선
한국 가톨릭 호스피스 학회 국제 이사 · 아시아 태평양 호스피스 학회 회장

I. 아시아 태평양 호스피스 학회의 태동

현대 호스피스가 1960년대 초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국가에서 시작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기실 한국에서도 1965년에 호주에서 온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수녀들이 강릉에 '갈바리 의원'이라는 이름으로 가정 호스피스를 시작한 것이 시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서양 문화를 배경으로 시작된 것이며, 호스피스의 근본 이념이 어느 나라에서건 변할 수 없는 인간 존중에 바탕을 두기는 했으나 이를 종교나 문화적 배경이 다른 동양 사회에 직접 적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1996년 싱가포르에서 국제 호스피스 학술 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이때 주최국인 싱가포르 사람들이 아시아 각국의 대표들을 초청하였고, 학술 대회가 끝난 후에 따로 모임을 가져 아시아의 문화권에 맞는 호스피스에 대하여 같이 연구를 하기로 하였고 제일 먼저 호스피스 종사자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에서의 국제 호스피스 학술 대회를 매 2-3년마다 개최하기로 하였고, 3년 뒤인 1999년에 홍콩에서 2001년에는 타이완에서 그리고 2003년에는 타이완의 타이페이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헤어졌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저를 비롯하여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가정의학과의 최윤선 선생님, 윤유선 선생님,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의 송경애 선생님, 이대 가정 호스피스의 최화숙 선생님 등이 참가하였고, 제가 한국 호스피스의 현황에 대한 발표를 하여 한국 대표로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II. Asia Pacific Hospice Network

한편으로는 일본의 Japan foundation이 비용을 부담하여 아시아 지역 각 나라의 호스피스 종사자들을 초청하여 호스피스에 대한 연구를 하는 모임이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고, 싱가포르 국제 호스피스 학술대회에 다녀온 다음해인 1997년에는 저도 초청되어 참가하였는데, 그 회의에 참석해 보니 초청받은 각 나라의 대표들이 모두 싱가포르 회의에서 만났던 사람들이었고, 그 이전부터 그 회의에 참석해 왔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모임에서 아시아 태평양 전체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고 급기야 1998년에는 아시아 태평양 호스피스 학회를 결성하기로 합의하여 준비위원회(pro-tem committee)를 구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연스럽게 모든 회의 참가 비용을 부담하던 일본의 Dr. Hinohara가 준비위원회의 위원장, 일본의 Dr. Tetsuo Kashiwagi와 홍콩의 Dr. Leung Che Hong이 부위원장이 되고,

실무를 맡아 일하던 싱가포르의 Dr. Cynthia Goh가 총무가 되었습니다.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Dr. Shigeaki Hinohara는 아주 특별한 인물로 심장내과 전문의인데 Japan foundation의 이사장의 주치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장에게 당신이 몇 살 이상 생존하게 되면 호스피스에 투자하라는 권고를 하였고 그러겠다는 약속을 받아 두었는데 그 이사장이 실제로 그 연령 이상 생존하여 그 약속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동경의 교외의 아름다운 곳에 Hope hospice를 열었고, 아시아 태평양 호스피스 모임을 후원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Dr. Shigeaki Hinohara는 현재 92세인데 아직도 1주일에 한 번씩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는 음악광이고 그분의 수첩에는 2년 뒤까지 일정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과거 KAL기가 납북되었을 때 그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었다고 하며, 최근에는 노인병에 대한 강연을 위해 한국을 다녀가기도 할 정도로 왕성한 건강을 자랑하며 활동 중인 분입니다.

III. Asia Pacific Hospice Palliative Care Network(APHN)

아시아 태평양 호스피스 학회는 결국 2001년 타이완에서 결성되었습니다. 명칭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논의를 하던 중 여태까지 준비 모임을 해왔던 일본 주최의 Asia Pacific Hospice Network의 이름을 따되 Palliative Care를 추가하고 다만 약칭을 쓸 때에는 APHN으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연히 일본의 Dr. Hinohara가 초대 회장이 되었고 부회장은 준비위원회의 부회장이 계속하여 일본의 Dr. Tetsuo Kashiwagi와 홍콩의 Dr. Leung Che Hong이 맡았고 총무는 싱가포르의 Dr. Cynthia Goh, 부총무는 제가 맡았고, 유일하게 월급을 받는 사무총장은 싱가포르의 Dr. Rosalie Shaw가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학회를 자선단체로 등록하는 문제가 복잡했는데 우선 자선단체로 등록을 하면 모든 회비나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 이점이 있어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홍콩에 등록하느냐 아니면 싱가포르에 등록하느냐가 논점이 되었습니다.

홍콩 사람들은 홍콩에 등록하기를 강력히 원했는데 아마도 영국의 식민지에서 중국으로 반환되는 사회적 문제와 맞물린 국내 정세로 인한 것이었다고 추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어 중국 국내법의 관할을 받게 되고, 많은 국제단체에서 봐 왔듯이 중국이 회원이 되면 타이완을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아 결국 타이완을 축출하도록 주장하는 상황이 장래에 발생할 위험이 지적되어, 회원을 국가 단위로 받지 않고 sector라는 용어를 써서 국가의 정체성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되더라도 회원 자격이 지속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였고, 결국 싱가포르에 등록을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인구가 많은 나라가 장차 가입을 할 경우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발언권 강화를 꾀하고 학회 전체에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려고 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그에 대비하기 위한 많은 고려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그 많은 인구가 아직도 호스피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하루빨리 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하고 설득해야 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한국, 일본, 타이완, 홍콩,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등이 회원 sector로 되어 있고, 인도, 몽골, 네팔, 스리랑카, 중국 등이 학술 대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IV. 아시아 태평양 호스피스 학술 대회 (Asia Pacific Hospice Conference, APHC)

1996년 싱가포르에서 개최했던 국제 호스피스 학술대회를 아시아 태평양 학회의 공식 대회인 APHC

로 인정하기로 결정하면서 1992년에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던 국제 학술 대회를 제1회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1996년 싱가포르 대회를 제2회, 1999년 홍콩 대회를 제3회, 2001년 타이페이 대회를 제4회, 2003년 오사카 대회를 제5회로 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서울에서 2005년에 개최된 대회를 제6회 대회, 금년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대회를 제7차 대회로 하였고, 2009년에는 호주의 퍼스(Perth)에서 제8차 APHC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APHC는 보통 수요일 저녁에 welcome reception과 opening ceremony를 개최하고, 목요일과 금요일 전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을 학술 대회 기간으로 하면서 금요일 오후에는 Gala dinner를 열어 각 회원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함께 저녁을 즐기는 시간을 갖고, 토요일 오전에는 각국의 호스피스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왔습니다. 2005년에 한국에서 개최되었던 제5차 대회는 전례 없이 많은 회원들의 참여와 화려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은 대회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APHC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개최국들의 경제 수준이 균일하지 않아 필리핀 마닐라 대회에서 보듯이 학술 대회의 수준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술 대회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적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만 개최한다면 그 또한 지역의 전체적인 발전에 저해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APHN에서는 학술대회의 개최를 APHN과 개최국이 같이 비용을 부담하여 공동 개최하는 방안을 내놓았고 2009년 호주 퍼스의 제8차 대회에서부터 적용하려고 합니다.

V. 한국의 역할

제가 APHN의 회장이 된 것은 제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한국을 대표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고 한국의 역량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결과였다고 믿습니다. 한국의 호스피스는 지금까지 성장기에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외국의 유명 교수들이나 호스피스 전문가들이 한국에 와서 강의와 교육을 담당하던 시절이 오래 지속되었습니다만, 호스피스의 질이나 양적인 면에서 이제는 한국이 배우고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후진국에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뀌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호스피스를 처음 시작하는 외국의 호스피스 종사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교육을 시키거나, 아니면 한국의 전문가가 외국에 가서 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공헌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어를 잘하는 호스피스 전문가를 발굴하고 파견하는 일이 필요하며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상황을 국제무대에서 발표하고 연구를 열심히 하여 그 결과로 국제적 수준의 논문을 쓰는 일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APHN의 운영에도 공헌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일본,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매년 미화 십여만 달러씩을 보내서 운영 자금으로 충당해 왔는데, 한국은 한국 호스피스 완화 의료 학회에서 미화 만 달러(약 천만 원)을 한 번 보낸 것 외에는 공헌한 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학회에서도 기금을 조성하여 조금 더 공헌을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호스피스 종사자들이나 기관들이 APHN에 회원 가입을 많이 하여 적극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APHN의 운영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투표권을 많이 가지게 되어 우리의 의견이 더욱 많이 반영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것이 결국 이 지역의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믿습니다.